

단 한 번의 보도... 그리고 10년의 인연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흥여진 기자



2015년 2월3일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보도한 뉴스타파 방송 화면. 뉴스타파 입사 2년 차였던 때 서울 아산병원에서 연우를 처음 만났다.

한국기자협회에서 기억에 남는 ‘잊지 못할 취재원’을 공모한다는 소식에 바로 떠오른 취재원이 있었습니다. 기자 생활 15년 차인 제 기억에 가장 뜻깊게 남아있는 취재원, 2024년 올해, 그 다음해, 아마 평생토록 잊지 못할 취재원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취재원을 지금 소개합니다.

10년 전의 일입니다. 2014년 2월17일, 기록적인 폭설에 경상북도 경주에서 마우나오션리조트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부산 외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한창이던 리조트 체육관의 천정이 쌓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그 체육관은 처음부터 눈의 무게를 버티지 못할 만큼 부실하

게 지어졌습니다. 경주시청의 제대로 된 허가 없이 ‘서류 끼워 넣기’로 급조된 건물이었습니다. 하다못해 리조트에서 부실 시공된 체육관 천장 위로 쌓이는 눈을 미리 치우기만 했더라도,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리조트 측은 내부 골프장만 치우고, 체육관은 방치했습니다.

불법 시공에 관리 부실까지, 이득에 눈이 먼 기업이 낳은 ‘인재’로 수많은 사람들이 크게 다치거나 죽었습니다. 부상자 105명, 사망자 10명.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삶이 그날로 180도 바뀌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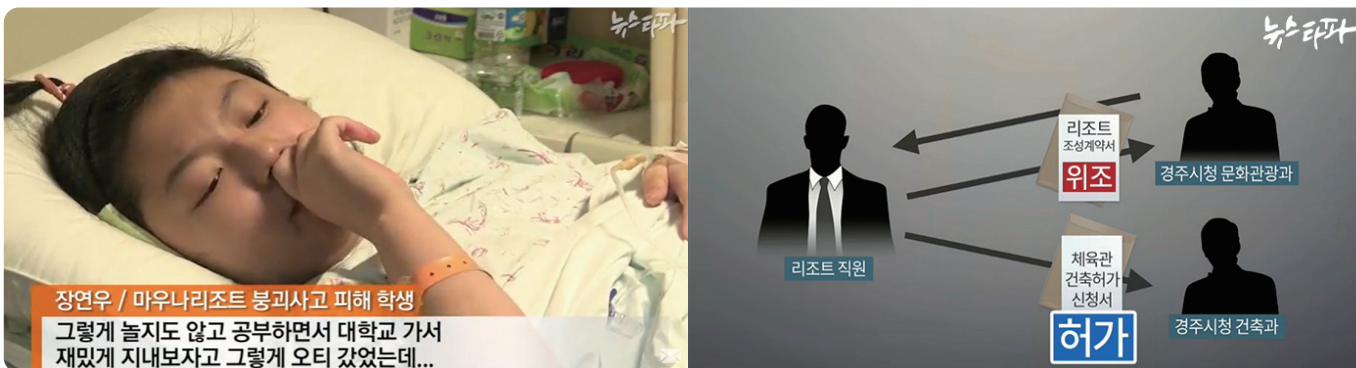
그날 참사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생존자 중 부상이 가장 심했던 21살(참사 당시 나이) 장연

우라는 친구입니다. 무너진 체육관 안, 눈 속에 뒤덮여 있다가 구조된 연우는 조금만 늦게 발견됐다면 생사를 달리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극적인 생존에 참사 직후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관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리조트의 모회사인 코오롱이 사망자에 대한 보상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부상자 문제에 대한 관심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304명의 희생자를 낳은 또 다른 대형 참사에 두 달 전, 경주 참사는 빠르게 잊혀져 갔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경주 참사는 잊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의 삶이 어떠한지 미처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2015년 2월, 마우나오션리조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방송을 만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당시 저는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공사에 참여했던 책임자들이 1년 뒤, 어떤 징계와 처벌을 받았는지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참사의 가장 큰 법적 책임을 공사를 지휘한 원청 코오롱건설이 아닌 하청업체가 지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불법 체육관 인허가에 관계된 공무원들은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검찰 수사 기록을 입수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원청 코오롱건설과 경주시청의 잘못을 짚었습니다.



장연우 /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피해 학생
그렇게 놀지도 않고 공부하면서 대학교 가서 재밌게 지내보자고 그렇게 오티 갔었는데...

2015년 2월3일 뉴스타파 보도 화면. 당시 연우는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갔고 기쁜 마음으로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했을 뿐인데, 이런 사고를 당해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2015년 2월3일 보도 내용 중. 검찰 수사기록을 입수해 코오롱 측이 리조트 체육관 공사를 서둘러 진행하기 위해 위변조된 서류를 경주시청에 제출했고, 경주시청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공사 허가를 내줬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 보도를 준비하면서 처음 연우를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보도의 핵심이 연우는 아니었습니다. 기사의 핵심 주제는 참사의 책임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었는데, 피해자의 목소리를 담지 않을 수 없었기에 연우를 접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2015년 겨울, 연우를 아산병원에서 만났습니다. 이미 1주기를 맞아 여러 언론사 기자가 연우의 병실을 다녀간 뒤였습니다. 참사 당시 철근 기둥이 하반신을 관통해 방광, 골반, 다리를 모두 쓸 수 없게 된 연우는 침대에 누워 꼼짝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1년 만에 28차례 수술을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큰 수술이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1년 내내 누워있던 연우는 "억울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무런 죄 없이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을 뿐인데, 왜 이런 사고를 당해야 하는 것이냐며 원통해 했

습니다. 그러면서도 연우는 자신보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더 걱정했습니다. 참사가 일어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떻게 또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느냐며 분노했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 희생자들을 언급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했을 텐데도 참사의 재발을 막길 바라는 마음에 힘든 인터뷰에 또 응해주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1년이나 늦게 연우를 찾아가 1~2시간 인터뷰를 하고 돌아 나오며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에 답을 인터뷰를 일정 정도 하고, 방송에 나갈 소위 '그림'도 찍고 할 일은 다 했는데 불편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탐사보도 매체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굴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정작 참사 피해 당사자의 목소

리를 진중하게 듣지 못한 건 아닌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취재라도 막상 보도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데, 이상하게도 당시 취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도 이후에도 연우의 얼굴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발길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연우의 생일이었던 7월7일, 작은 케이크를 사두고 불쑥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취재와 무관하게 취재원을 개인적으로 찾아간 건 처음이었습니다. 병실에 있던 어머니와 연우가 뜻밖의 방문을 너무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작은 케이크에 초를 켜고 함께 소원을 빌며 기뻐했던 연우의 표정에 그 다음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저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찾아가다가, 이후에는 남자친구와, 그리고 남편과 지금은 아이와 함께 연우를 만나러 갑니다. 어느 순간, 연우에게 저는 기자에서 언니가 되었습니다. 연우와 잘 지내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연우는 제게 친동생과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연우가 입원했던 병원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외과 전문병원으로, 또다시 척추 전문병원으로, 그리고 지금은 요양병원으로 병실을 옮겼



2020년 8월, 당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외부인의 병원 출입이 어려웠던 티라 응급실 앞 환자 면담 장소에서 짧게 만났다. 연우에게 출산 후 처음으로 딸을 보여줬던 날이다.

습니다. 안타까운 건 연우의 상태가 호전되어 병원을 옮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자 대기가 많은 대형병원 특성상 1명이 병실을 오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퇴원과 입원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음 병원을 찾는 일은 오롯이 연우 어머니 몫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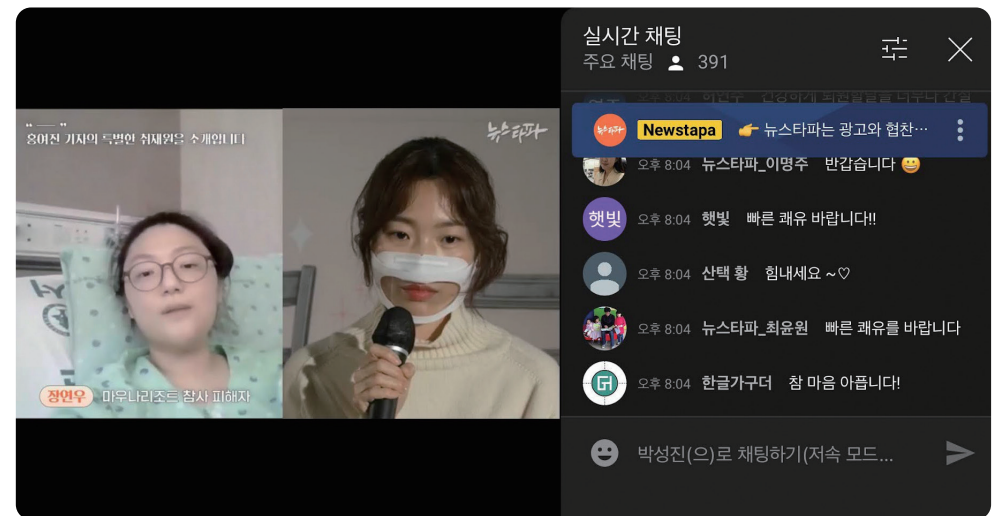
참사 직후 병실을 지키던 코오롱 직원들은 어느새 자취를 감췄습니다. 코오롱 측은 치료비 지원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지원을 하면서, 다른 참사에 비해 비교적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라는 자화자찬의 답변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참사 피해자에 필요한 것이 금전 지원만이 아니라 치료가 끝날 때까지 병원과

치료방법을 알아봐 주는 것이라는 걸 연우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연우를 혼자서 돌보던 어머니는 위암까지 얻었습니다. 기업의 책임은 비단 피해 당사자에게만 그쳐선 안 된다는 생각도 그때 처음 했던 거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취재해 보도하려다가도 기사로 인해 행여 연우의 치료 지원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하는 연우 어머니의 모습에 2015년 이후 후속보도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우나오션리조트 참사가 세상에서 완전히 잊히지 않도록 제가 있는 자리에서 연우의 병원생활을 알리는 짧은 방송만 몇 번 했을 뿐입니다.

연우의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 더 이상 수술을 해준다는 의사도, 수술 방법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습



2022년 12월 뉴스타파 회원의 밤 행사 화면 중, 코로나19로 대면 행사가 불가능하던 때, 연우와 영상통화로 인터뷰하는 코너를 마련해 뉴스타파 회원들에게 연우의 소식을 알렸다.

니다. 연우는 지금도 근본적인 하반신 수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근육의 마비를 막기 위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활치료를 하면 골반과 방광 통증이 더 심해지는데, 그렇다고 재활을 안 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7년 전 연우는 하이워커에 의지한 상태이긴 했지만, 처음으로 병상에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제대로 수술 받지 못한 상태로 매일 걷는 재활운동을 계속 하다보니 상태가 악화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연우는 매일 빠지지 않고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활을 안 받으면 다시 10년 전으로, 아예 침대에 누워있던 때로 돌아갈 것 같아 불안해요” 최근 연우가 제게 한 말입니다.

잠이라도 폭 자야 좋은 컨디션으로 치

료를 받을 텐데, 체육관 천장이 무너져 목숨을 잃을 뻔 했던 연우는 지금도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날의 트라우마로 거의 매일 밤을 뜬 눈으로 보내다 아침이 되어서야 잠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 일상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우는 11년 전 세계를 누비는 무역업을 하겠다며 부산외대 미안마어과에 입학했습니다. 재수를 해서 1년 늦게 대학에 들어간 만큼, 공부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누구보다 컸습니다. 그런 연우의 발이, 마음이, 꿈이 10년 넘게 병원에 묶여 있습니다. 21살에서 31살이 될 때까지 병원에만 있어야 했던 연우의 삶을 누가,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기업이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



2023년 8월, 나의 취재원 연우와 나의 딸 채이. 채이는 연우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 따른다.



2023년 12월24일 인천 서승병원 휴게실에서, 우리 가족과 연우 가족이 함께 만나 조촐하게 크리스마스 이브를 축하했다. 이때만 해도 연우가 병원 휴게실에 나와 2~3시간 앉아있는 것이 가능했는데, 현재는 다시 몸 상태가 안 좋아져 대부분의 시간을 병실에 누워서 보낸다.

서, 참사에 책임이 있는 경주시청은 어느새 관심을 끊었습니다.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관심에 마감 기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연우를 떠올리면 수많은 질문이 쏟아지지만, 정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 찾아가는 중입니다.

10년간 연우를 보면서 보도할 수도, 의사를 찾아줄 수도 없는 저는 무력감을 느낀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가끔은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 연우를 찾아가기가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연우가 곳곳이 견뎌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심이 돼 연우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렇게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연우와의 인연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참 비효율적이고 무능한 기자입니다. 오랜 세월 한 취재원을 알고 지내면서 정작 보도는 단 한 차례밖에 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연우와의 인연은 제 모든 취재와 보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을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그 이면의 사람들, 삶을 보고 취재하려는 마음가짐이 생겼습니다. 참사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등 노동 문제를 취재할 때의 시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연우는 그렇게 어떤 취재든 대충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스승 같은 취재원입니다.

10년간 단 한 번의 보도밖에 하지 못한 기자는 오늘도 다짐합니다. 마우나오션리조트 참사 10년의 목격자에서 20년



2015년 2월3일 뉴스타파 보도 화면. 당시 뉴스타파는 마우나리조트 참사의 가장 큰 법적 책임을 부실 공사를 초래한 원청 코오롱이 아닌 하청업체가 졌고, 원청 관계자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의 목격자로, 30년의 목격자로 연우 곁에 존재해야겠다고 말합니다. 앞으로도 연우의 삶을 꾸준히 지켜보고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때에 두 번째 보도를 내놓겠다고 다짐합니다.

저는 탐사보도 전문 매체에서 일하고 있지만, 아직도 진정한 탐사보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권력이 감추려는 비밀을 드러내는 일일 수도 있고, 사건의 맥락을 제대로 분석하는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진짜 탐사보도에 가까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것 같습니다. 단 한 번의 취재로는 제대로 된 진실을 알 수 없다는 것, 잊혀진 누군가의 삶을 탐사, 발굴하는 것도 탐사보도

의 일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우의 삶을 탐사보도로 풀어내는 과정이 제게 남아있고, 저는 오늘도 그 취재를 진행 중입니다. 최장기간이 될 취재를 마치고, 두 번째 보도물을 내놓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자생활을 충실히 해나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스스로와 약속하기 위해, 오늘 이 글을 씁니다. 그리고 오늘도 뜬눈으로 밤을 지새울 나의 소중한 취재원 연우에게 이 글을 바칩니다. 🍀

뉴스타파 흥여진 기자